

한국고대가람 변천양상에 관한 불교사적 고찰

- 불신관의 발전과 불탑 및 불상의 위상변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주 형*

(사단법인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스페인 세비야대학 박사과정 수료)

장 석 하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대승불교, 불상, 불탑, 1탑 1금당, 1탑 3금당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¹⁾

한국의 고대가람유적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찾아진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 가람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사적 단초가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고대가람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 보려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寺址의 배치에 관한 현상적 특성이 상당수 밝혀졌다.

동아시아의 고대가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堂과 佛塔의 대립·상보적인 관계의 변화 즉, 불탑에 대한 금당의 탈중심성으로 인한 가람배치의 변화를 파생케 했음을 암묵적인 통론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람형식의 발생은 직접적으로는 인도 혹은 서역을 거쳐 들어온 불교건축의 중국

적 재해석에 따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당·佛像·불탑의 결합양태는 1차적으로 중국적인 관점에 입각한 불교의 수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²⁾, 이러한 조합의 생성 기층에 불교 내부요인의 작용에 관한 고려는 순차 설정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할 수 있겠다.

결국 동아시아의 가람의 기원 및 변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지역적·문화적 영합에 의한 토착화의 결과에 국한된 현상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선적으로 불교사적 고찰이 분석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불교국가들을 북방불교 즉, 大乘불교권의 범주로 간주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고대국가들이 불교를 수용할 당시 중국(南朝와 北朝)의 불교가 대승불교 一色の 정세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분명한 것은 部派(小乘)³⁾불교와 대승불교의

* 교신저자, 이메일: musy38@hotmail.com

1) 본 논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인도, 중국, 서역과 같은 국명 및 지역 표기는 현대적 영토개념으로 당시의 국제정세와는 다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세 및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할 경우 논문의 전개 및 이해에 복잡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포괄적으로 현재의 국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염중섭, 「伽藍配置의 來源가 중국적 전개양상 고찰」, 건축사연구, 제19권 2호, 통권69호, p.43

3) 소승불교의 기원에 관해서는 원시불교를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와 직접 대승운동의 상대방이 되었던 보수

불교관 내지 불신관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형이상학의 것으로 이것이 구체화 또는 실현화 되는 불교미술 및 불교건축과 같은 하위개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하여 대승불교의 가람과 부파불교의 가람형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공인한 불교의 특징이 각기 달랐다면 이 두 나라의 가람형식이 차이를 갖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불탑과 불상의 출현에 따른 가람의 변화양상 및 대승불교의 출현 배경과 그 이후 나타난 불신관의 차이점을 고찰하여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이 각각의 가람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며, 나아가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특성 고찰에 있어 인도불교의 중국전과 과정과 당시의 중국 불교정세를 검토하여 고구려와 백제 불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구가 확인된 각각의 가람형식을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고대가람 형식이 인도 불교의 중국적 토착화의 결과라는 관점과는 달리 불신관의 변화 및 가람구성요소(불상과 불탑)의 생성과 이들의 대립적 관계 변화에 기반을 둔 추론적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분석 및 비교대상의 數的 부족과 더불어 일부 대상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의 불완전성, 그리고 드러난 건물지의 정확한 성격규명의 한계 등 해석에 필요한 여러 자료의 불충분에도 불

적인 모든 부파만을 일컫는 경우의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집단이 스스로를 대승으로 자칭하고 기성불교를 소승으로 낮추어 부른 것으로 후자가 스스로를 소승으로 자칭하는 일은 없다. 이는 신구의 대립적 상황에서 발생한 신세력의 일방적인 命名으로 본문에서는 대승의 상대어로 조소하는 의미의 소승이란 단어를 대신하여 부파로 사용하기로 하지만 이 또한, 분류상 합당한 용어로서는 한계성을 가진다.

구하고 이 논문은 고대가람의 변천과정 추적에 있어 불교사적 접근에 입각한 하나의 관점을 찾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2. 불교사의 변천에 관한 고찰

2-1. 인도 및 중국불교의 변천 과정

불교관 및 불신관의 변화는 불탑 및 불상의 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할 수 있겠으며, 더불어 불탑 및 불상의 가람 유입은 가람배치의 변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불교사적 고찰은 가람배치의 기원과 변천과정 분석의 근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佛滅 후 100여 년이 지나 교리의 해석이나 계율의 실천에 관하여 교단내의 의견 대립으로 上座部와 大衆部로 분열되게 되는데 이를 根本分裂(혹은 根本二部分裂)이라 하며, 이러한 분열은 더욱 심화되어 그로부터 약 100여 년 뒤 다시 대중부와 상좌부 모두에서 18부의 교단이 파생되는 枝末分裂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분열의 시기를 부파불교의 시대라 일컫는다.

부파교단의 난립에 이어 기원을 전·후로한 시기의 출가주의에 기반을 둔 개인적 해탈을 추구하던 기존의 교학적·교조적 교단에 반하여 개인의 완성보다는 중생구제와 같은 이타적 실천에 기초한 재가자 중심의 대중적 불교운동인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된다.

대승불교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중 불탑을 조성하고 관리하던 在家者들에 의한 불탑신앙에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7세기를 기점으로 대승불교의 華嚴사상 및 中觀派·瑜伽行派사상 등을 機軸으로 토착민의 종교에 영향을 받아 密敎성립하게

되는데 후에 미신과 주술을 본질적 요소로 삼는 비불교적·힌두교적 요소가 변형·혼합된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는 左道密教(Tantra불교)로 변질되며 결국 13세기경에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인도에서 불교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인도불교와 관련하여 한국불교의 형성과 발전에 매개적 역할을 했던 중국의 불교 수용 및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고대가람이 형성된 수·당시기까지 중국 불교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략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불교의 수용시기부터 鳩摩羅什이 長安에 들어오기까지(1~5세기초경)로 이 기간은 중국불교의 ‘준비단계’로 주로 渡來僧에 의해 산스크리트 원어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이 주된 사업이었으며, 安世高, 支婁迦讖 등에 의해 부파와 대승의 경전이 동시에 번역되던 기간이다. 또한 교학적 측면에서는 格義佛敎⁴⁾가 성행하였다.

2단계는 구마라집 이후 南北朝시대까지(5~6세기말경)로 譯經사업은 더욱 왕성해지고, 불교 자체의 처지에 입각한 본격적 내용 연구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

3단계는 수·당시기까지(6세기말~10세기초경까지)로 불교의 이해에 관해 敎相判釋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는 불교에 대한 중국의 독특한 가치 비판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여러 종파가 성립되고 발전되어 가게 된다.⁶⁾

종합적으로 7~8세기를 기점으로 인도의 불

교는 대승과 소승의 구별도 모호해지고 극히 융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승이나 소승 모두가 밀교화 하였으며, 이후 힌두교의 융성 및 회교도의 인도침략으로 불교는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다.⁷⁾ 반면 이 시기에 즈음하여 중국의 불교는 인도불교로부터 독립된 불교의 황금시대를 누리게 되는데, 비로소 종파가 성립되고 불교가 중국 문화에 융합되어 중국적 불교로 형성되어 간다.⁸⁾

그러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 시기 이전까지 인도사회에서는 대승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부파불교가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4~7세기 동안 인도를 여행한 求法僧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⁹⁾ 중국의 구법승이 이 기간 동안 왕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도불교가 중국의 불교에 일정기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중국에서도 대승불교와 더불어 부파불교도 함께 성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히라카와 아키라著, 이호근譯, 『인도불교의 역사』 상권, 민족사, 1989, p.18 참조

8) 마에다 에카쿠著, 석오진譯, 앞의 책, p.115 참조

9) 히라카와 아키라著, 이호근譯, 앞의 책, p.263-280를 참조하면, 우선 法顯의 『佛國記』에서는 당시에 인도에는 小乘寺, 大乘寺, 大小兼學寺라는 3종의 절이 있었다고 하며, 義淨의 『南海寄歸內法專』에서는 비록 날란다사에 국한되기는 하나 대승과 소승의 이렇다 할 구별이 없고 율장의 계율에 따라 三衣一鉢의 생활을 하고, 모두 다 四諦를 닦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보살을 예배하고 대승경을 읽는 자’가 대승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소승이라 하고 있다.

이주형, 남동신, 이태승, 강희정, 주경미, 김혜원, 이영중, 하정민,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주)사회평론, 2009, p.91-93에서 현장이 인도에서 귀국한 후 편찬한 『대당서역기』의 내용 중에 현장이 여행한 인도와 서역의 나라들의 불교 특성을 기록한 내용을 분류하였는데, 소승으로 명칭한 국가가 28개국, 대승이 9개국, 대·소승 겸학이 16개국으로 수치적으로 이시기의 인도와 서역에는 아직까지 소승의 영향력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불교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유교나 노장사상 등 중국 고유의 사상으로부터 유사한 개념이나 용어를 차용하여 설명하는 방법의 불교

5) 대승과 소승을 막론하고 수많은 경전이 번역된 가운데 불교의 다양한 敎說들을 여러 범주로 분류·종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사상체계로 이해하는 것

6) 마에다 에카쿠著, 석오진譯, 『불교요설』, 김영사, 1987, p.95-98 참조

2-2. 중국의 불교전파 과정 및 불교 특성 고찰

인도불교의 육로에 의한 중국전파는 1차적으로 서역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기원후 1세기경 북상한 불교는 파미르고원의 서쪽 지방인 서투르키스탄에서 오아시스 육로를 따라 동진하여 동투르키스탄(현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일원에 파급되어 다시 天山北路와 天山南路의 두 경로를 따라 중국으로 점진하였으며,¹⁰⁾ 다시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대승불교에 바탕한 북방불교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처음 서역에 전파된 불교는 부파불교의 상좌부계에 속하는 說一切有部였으나 중국으로 전파 될 당시에는 부파 및 대승의 구분 없이 전해진 듯하며, 이는 교리적으로는 安世高와 支婁迦讖에 의해서 부파경전과 대승경전이 거의 동시기에 번역되는 것을 통해서 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다.¹¹⁾

인도와 같이 역사적 순차성에 따라 발달한 소승·대승의 경전들이 중국에 들어와서는 그 성립 순서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제각기 무질서·무계통으로 번역되고 연구되었으며,¹²⁾ 수·당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종파가 성립되고, 교상판석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중국의 불교정세는 일정기간 동안 부파와 대승이 혼재하여 발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남북조시대의 불교는 북방의 이민족국가와 남방의 漢민족 국가가 대립함으로써 불교도 서로 이질적 환경에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³⁾ 그러므로 이 시기에 남조와 북조의

불교특성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며, 대승불교에 기반을 둔 북방 불교권의 형성에 일조한 북조의 불교와 달리 해로 및 육로를 통한 인도불교와 직접 교섭을 가지게 된 東晉(4세기초~5세기초)¹⁴⁾을 비롯한 남조의 불교는 당시의 인도불교의 정세로 보아 대승불교와 부파불교가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3. 한국의 불교전파 과정 및 불교 특성 고찰

불교의 전파는 公傳과 私傳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전에 앞서 사전으로 이미 불교가 파급되었음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측컨대 불교의 공인 이전 고대 한반도의 불교 私傳에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는 분명 중국을 통하여 중국과 같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구분 없이 혼재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대불교의 특성이 왕실에 의한 수용을 필두로 하여 국가 불교적인 성격을 띠게 됨으로서 대규모 사찰건립 등과 같은 일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고로 가람의 형식과 불교사상종류와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전을 근거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중남부 서편에 위치한 백제는 지리적으로 중국 양자강 유역의 남조와 가까워 해로를 통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류의 물결을 타고 동진에 온 인도의 胡僧 마라난타는 백제에 이르렀을 것이다.¹⁵⁾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도사회에서는 7세기 전반까지 부파교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음을 알 수 있으며¹⁶⁾ 백제가 동진을 거쳐 온 인도

10)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2001, p.488~489

11) 염중섭, 앞의 논문, p.55

12) 마에다 에카쿠著, 석오진譯, 앞의 책, p.112

13) 마에다 에카쿠著, 석오진譯, 앞의 책, p.109

14) 미찌하다 료오슈著, 계환譯, 『중국불교사』, 우리출판사, 1996, p.13

15) 정수일, 앞의 책, p.517

16) 히라카와 아키라著 이호근譯, 앞의 책, p.148

의 승려로부터 직접 불교를 전래 받았음은 백제의 불교공인이 부과계 불교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반면, 중국의 대승불교는 前秦에서 北魏시대에 이르러 북방불교권의 형성¹⁷⁾ 즉, 대승불교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 나라와 접하고 있었던 고구려는 해로를 통한 남조의 강남 불교 보다는 육로를 통한 북조의 대승불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구려의 경우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순도의 종파가 대승불교인 삼론종¹⁸⁾이었고, 文咨王(491~518년) 때 龍樹의 《中觀論》 등 三論을 비롯한 天台, 涅槃 등의 교법이 들어와 대승불교에 대한 연구 및 교화가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僧朗, 慧灌, 道澄에 의해 三論宗이 크게 발달하였다. 한편, 백제는 율종이 발달하였는데, 율종은 사분율종을 말하며 『四分律』¹⁹⁾을 근본 宗旨로 하고 있는 종파로 사분율은 부과불교의 계율서이다. 또한 백제의 승려 謙益이 526년(聖王 4년) 『五分律』²⁰⁾의 산스크리트본을 인도에서 구하여 번역했으며, 曇旭과 惠仁은 律疏 36권을 저술했다.

이 모든 정황적 자료와 더불어 지정학적 측면에서 불교의 공전은 고구려의 경우 육로를 통하여 대승불교가 유입되었을 공산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 백제는 동진을 통해 인도의

부과불교를 직수입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가람의 구성요소 변천에 관한 고찰

3-1. 불신관의 변천에 관한 고찰

불타의 영원한 본질에 관한 탐구는 二身說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불신론이 제기된 것은 석존 당시로까지 소급되어 진다.

석존의 입멸을 계기로 불타에 대한 연구는 불멸의 진리, 보편적인 법, 그 자체를 불타의 實新으로 생각하는데서 영원불멸한 法身(Dharmakāya)의 개념이 성립되고, 이에 대해 입멸한 現實新인 석존은 色身(Rūpakāya)으로 불리게 되었다.²¹⁾ 이러한 원시불교의 범신과 색신, 또는 실신과 父母生身の 2신설은 부과불교와 대승불교를 통하여 다양하게 전개된 여러 유형의 불신설의 시원이 된다.²²⁾

이처럼 원시불교에서 비롯되어 부과불교에까지 이어지는 색신 중심의 2신설은 대승초기에 이르러 범신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 2신설로 발전하게 되며 다시 三身說로 확대되는데, 이런 변화의 근간에는 報身²³⁾사상의 도입이 불가결의 요소인 바, 이 보신사상의 형성에 있어서는 菩薩(Bodhisattva)²⁴⁾사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보살사상은 불타관

17) 고구려의 불교유입시기를 이후로 북조의 진진에서는 구마라습(Kumārajīva)등을 통하여 대승경전의 번역을 발판으로 대승불교의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에 北魏시대에 까지 이르는 대승불교 즉, 북방불교권을 완전하게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19) 四大戒律書의 하나로, 석가모니 입멸 후 100년경에 曇無德이 부과인 상좌부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걸쳐 뽑아 엮은 律文佛書

20) 소승삼장 중 律藏에 속하는 불경으로 불교교단의 기강 확립과 불교도들의 본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계율을 한데 모은 것을 율장이라고 한다. 그 중 유명한 다섯 가지 율장을 五部律이라고 하는데, 오분율은 그 중 하나이다.

21) 武內紹晃, <佛陀觀의 變遷> 鄭承碩譯, 『大乘佛教概說』, 김영사, 1989, p.186

22) 노권용, 「三身佛說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통권 제32호, 2002, p.53 참조

23) 보신은 영원한 본체신으로서의 범신과 현실적 구체성을 띤 색신이 통합된 모습의 불신관

24) 보살이란 원래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를 뜻하는바 초기불교에 있어서는 성불 이전의 석존, 즉 구도자로서의 석가를 지칭한 것으로, 보살이라 하면 주로 수백 생애를 통해 공덕을 쌓아온 석가보살을 뜻하였던 것이나, 대승불교의 유행과 더불어 보살사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살은 석가보살에 한정되지 않고 재가, 출가, 남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성불을 목표로 하는 구도자로서의 보살이 될 수 있었다.

내지 불신론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신관의 변화 및 보살사상의 성행 배경에는 三世十方諸佛²⁵⁾과 現在他方佛思想²⁶⁾ 등의 대두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관념은 차후에 다불사상에 기초한 보살신앙으로 발전되어 가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3-2. 불탑 및 불상의 등장배경

불교가 석존에 의한 종교라는 점에서 석존의 세계를 상징하는 가람배치에 있어 석존의 존재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사원 안에서 석존을 상징하는 것은 불탑과 불상이며, 이 중 불상은 金堂과 직결된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결국 당·탑의 가람배치 양식으로 정형화되게 된다.²⁷⁾

인도불교의 초기 수도자 집단(Saṃgha)의 임시적 수행처였던 아바사(Avasa, 住處)에서 불교가 내실을 갖추고 僧團을 형성함에 따라 점차 영구적인 공동의 房居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아라마(Ārāma, 園林)로 확장된다. 이러한 초기 형태의 가람이 불멸후 불탑의 등장으로 배치상의 일대 변화를 맞게 되는데 석존의 입멸 후 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장례절차와 舍利塔조성에 관한 모든 일은 재가자들이 도맡아 하게 되었으며, ‘八王分骨’에 의해서 중인도의 각지에 불탑이 세워졌다. 또한 그 불탑들은 비구들이 거주하는 정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四大路(Cātumahāpatha)에 여래의 불

25) 과거·현재·미래에 출현할 千佛과 十方의 諸佛을 가르키는 말로 초기 불교에서 부처는 석가모니불 하나였으나 점차 시공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개념이다. 즉, 삼세시방이라고 해서 부처가 공간적으로는 시방에, 시간적으로는 삼세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과,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순간에 부처가 존재한다는 것

26) 현재타방불사상은 시방세계에 무량한 제불이 현재한다는 대승불교의 사상

27) 염중섭, 앞의 논문,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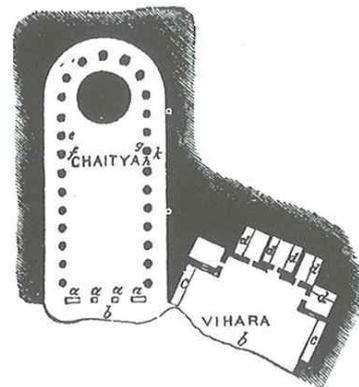
<그림 1> 산치대탑
(강우방·신용철, 탑, p.19)

탑을 造立하라’고 설해짐으로써, 불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건립되었다.

이 불탑들은 부파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재가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신앙하며 護持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⁸⁾

이후 아소카왕의 分舍利에 따라 이시기 다수의 불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후 造塔행위는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탑의 확산과 승배가 재가신자 사이에서 일반화되자 부파의 교단에서도 불탑승배를 교단 내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서력기원 전후의 시대부터 부파교단의 사원 중에 불탑이 세워지고 비구의 정사와 불탑이 병존하며 불탑공양이 행해지고 있었다. ²⁹⁾



<그림 2> 바자 석굴 평면도
(윤장섭, 인도의 건축, p.70)

28) 히라카와 아키라著, 이호근譯, 앞의 책, p.1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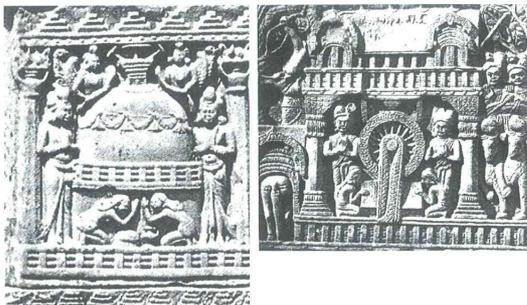
29) 마에다 에카쿠著, 석오진譯, 앞의 책, p.63 참조

한편, 대승불교운동의 출현에 즈음하여 인도에 불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석존에 대한 신앙은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라는 불교의 발전과정에서 불상의 출발점을 서로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천하게 된다.

부파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석존은 죽음을 통해 육신을 버리고 無餘依涅槃界에 들어 버렸으며 그 불타는 不可見의 형태로서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석존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³⁰⁾ 또한 석존이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석존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인식하여, 어디까지나 선각자로서 인간에 입각하여 석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³¹⁾

이러한 연유로 부파불교의 시대에까지 불상의 표현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불탑³²⁾의 난간과 塔門에 浮彫로 장식된 석가의 本生談(Jataka)에 관한 불전도에는 표현되어야 할 곳에 佛座, 菩提樹, 佛足跡, 寶輪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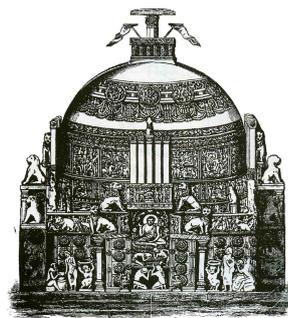
그러나, 대승불교운동의 출현으로 불교관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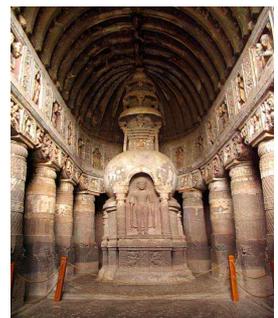
<그림 3> 바르하트 스투파 부조
(윤장섭, 앞의 책, p.84)

구체자로서의 불타가 요청되었기 때문에 석존을 이상화하고 초인화하여 역사적인 석존의 틀을 초월한 불타를 상정하기까지 이르며³³⁾ 이윽고 석존의 형상을 造像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 때 무불상의 전통을 깨고 불타의 모습이 구체적인 인물상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재가신자들로 구성된 불탑신앙자들의 佛 중심의 대승적 불타관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³⁴⁾

그러나 불상표현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에는 예배목적의 단독불상이 출현하지 않았으며, 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불탑을 장식하기 위한 석존의 本生譚이나 說話浮彫가 주로 제작되었다. 단독의 불타상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전도 속에 표현된 불타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불탑예배의 신앙이 불전도 속의 불타상과 결합하면서 예배상으로서의 불타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이다.³⁵⁾



<그림 4> 아라마라바티
대스투파 형태
(윤장섭, 앞의 책, p.87)



<그림 5> 아잔타
제19석굴 불탑
(윤장섭, 앞의 책, 원색화보)

결국 초기 불탑의 난간이나 탑문의 장식에 불과하던 불상이 불탑의 내부나 외부의 監室 및 覆鉢 밑에 조각되어, 불탑과 함께 예배 대상으로 변화 되어 가는데³⁶⁾ 이는 불상의 종교

30) 히라카와 아키라著, 이호근譯, 앞의 책, p.250-251

31) 町田甲一, <佛像の 理念と その 圖像の 展開> 『講座 佛教思想』 第7卷, 1975, 理想社, p.220-222 참조

32) 붓다가야(BuddhaGaya)의 조각, 바르후트(Bharhut) 대탑, 산치(Sanchi)대탑 등

33) 武内紹晃, 앞의 책, 1989, p.185 참조

34) 李孝杰, 「華嚴經의 成立背景과 構造體系」,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10

35) 히라카와 아키라著, 이호근譯, p.250-251

적 위상 확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불상이 불탑에 편입되어 경배의 대상으로 전이되어 감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는 불상과 불탑의 융합 즉, 불탑이 금당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불탑과 불상 분리 이전의 과도기적 양식으로 사료된다.

3-3. 가람의 구성변천에 관한 소결

가람의 배치형식변화의 1차적 요소는 불탑의 승단내부 도입이라 할 수 있으며, 일찍이 독자적으로 조성되었던 불탑과 사원이 부과교단의 불탑수용과 대승불교의 승단조직으로 인해 탑원(Chaytya)과 승원(Vihāra)으로 구획된 가람이 형성되어 갔음을 인도의 불교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불상표현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불상이 처음부터 예배의 대상으로 조상되지 않았으며, 불탑의 일부로 사용됨은 불탑과 불상의 분리 이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인도 내륙에 있어서 이 시기까지 불탑의 보편성 및 실제적인 측면이 불상의 상징성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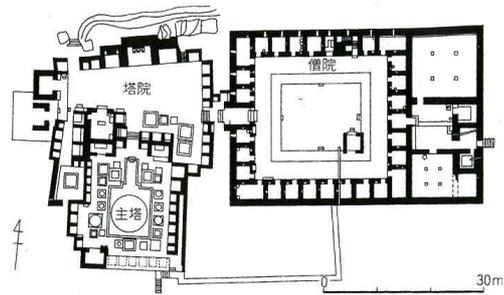
그러나 점차로 불탑이라는 제약적인 부분들은 결국 불상의 무제약적인 측면에 영향력을 잠식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인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입각한 각기 다른 문화배경 속에서의 多佛思想은 불상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출현으로 인한 불교의 종교화에 대한 가속 역시도 불상이 힘을 얻게 되는데 일조를 했다 할 수 있는데 특히 불교의 종교화는 필연적으로 종교의식을 과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불상의 확대와 금당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

36) 윤장섭, 『인도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86 참조

게 된다고 하겠다.³⁷⁾

이러한 연유로 불상은 점차 예배의 대상으로 고착되어 가는데, 가람내부에서 석존을 상징하는 것은 불탑과 불상으로 이 중 불상은 금당과 직결되며, 불탑과 금당은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가람내부에서 성스러운 공간은 승려들이 거처하는 공간과 분리되었으며³⁸⁾ 이러한 위계설정 에 따라 공간 구획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가람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는 불탑과 금당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그 안에서 불탑과 불상 즉 금당의 분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자울리안 사원 유적 평면도 (윤장섭, 앞의 책, p.105)

4. 대승불교의 발전과 가람형식의 변화

4-1. 대승불교 불신관의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7세기 이전의 인도불교의 정세와 견주어 봤을 때 중국에서는 적어도 수·당시대 이전까지 부과불교와 대승불교가 혼재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할 수 있으며, 두 계파의 불신관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가람형식에 상이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염중섭, 앞의 논문, p.54 참조

38) 디트리히 제켈著, 이주형譯, 불교미술, 2002, 예경, p.184

대승불교의 다불사상 즉, 복수의 부처에 대한 개념은 부파불교에서 기인³⁹⁾한 것이나 이는 초기의 범중심의 부파불교가 영원한 본체신으로서의 범신과 현실적·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색신과의 관계의 재정립에 따른 것으로 어디까지나 석존에 한정된 불신관이였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불신관은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부파불교에서 기인한 이신설을 기점으로 삼신설에 뒤이어 시간적(삼세불사상)으로나 공간적(타방불사상)으로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다불사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결국 보살신앙 및 정토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불신관은 1차적으로 화가와 조각가들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데, 단독의 불상과 더불어 삼존불⁴⁰⁾형식이 주가 되어 예배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며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불신관은 삼존불형식을 빌어 표현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불신관의 변천이 시간에 이어 공간으로 확장되어 타방 및 정토사상으로 귀결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대승불교의 불신관과 삼존불 구성의 관계에 관한 고찰

금당이 불상을 봉안하여 예배 및 의식의 공

39) 영원한 본체신으로서의 범신과 현실적,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색신과의 관계, 범신의 경우 영원성은 있으나 현실적인 구체성이 없고, 색신의 경우 현실적 구체성은 있으나 무상한 몸이어서 영원성은 갖추지 못하는 한계성으로 나중에 이의 중간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보신을 도입하여 삼신설을 완성

40) 삼세불, 삼신불 그리고 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이나 제자들이 놓이는 협시불구성은 기본적으로 삼존불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삼세불과 삼신불의 세불상은 존격이나 위상이 동등하다 할 수 있으나,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삼존불형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시불구성은 종교적인 계위에 따라 나뉘며 특히, 보살상의 협시는 부처의 화현으로서 또는 지혜의 상징으로 구현된 것으로 불교미술의 원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살상을 양협시로 위시한 삼존불형식은 羅漢, 天王(力士) 등이 추가되어 5존, 7존 혹은 그 이상의 불상을 협시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기존의 석존중심의 불신관과는 다른 대승불교의 다불 혹은 타방불신앙이 건축적으로 구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겠다. 이는 석존으로 표현되던 단독불만을 위한 공간에서 현재에 다른 세계에 다른 부처가 존재한다는 타방·정토사상에 입각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삼존불형식이 건축에 투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타방불의 대표가 바로 東方의 阿閼佛(혹은 藥師佛)과 西方의 阿彌陀佛이다.⁴¹⁾ 이는 본존을 중심으로 엄격한 좌우상칭을 이루는 불교미술 삼존구도가 건축적으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부파불교에서는 석존에 의해 설해진 법을 중시하는 범중심의 불교로 석존이외의 다른 대상을 경배나 신앙의 대상으로 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불삼존형식의 碑像이나 단독의 불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어느 경우나 석가불 신앙에 바탕을 둔 조형 활동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로 부파불교에서도 불상 조상에 있어서 삼존불구성을 취하였을 수는 있으나⁴²⁾, 이것이 건축적으로 구현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불탑의 승단 내부 도입 이후 불상의 등장과 더불어 불상의 영향력 증가로 인한 당·탑의

41) 武內紹晃, 앞의 논문, p.185

42) 불교미술 성립의 초기(기원전 3세기경~1세기경)에 의 불탑의 주위를 장엄하기 위한 부조 등에 삼존불구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조에는 法輪이나 佛塔으로 표현된 석가의 좌우에는 2天部の 像이 侍立하고 있으며 이 두 천부는 각각 梵天(Brahmā)과 帝釋天(Indra)으로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도의 오랜 신앙 가운데 존재했던 신들을 자연스럽게 도입하여 佛法守護의 善神(護法神: Dharmapāla)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범중심의 불교를 강조하기 위한 부연적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대승불교의 보살과 같이 승배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양협시를 侍立하는 형식은 동일하지만, 대상의 위상과 종교적 의미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분리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상 표현의 시기에 즈음하여 발생한 대승불교운동의 다양한 불신관의 발전은 기존의 근본주의 교리에 충실하던 부파불교의 가람구성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3. 삼존불 구성과 多堂형식 출현과의 상관성 고찰

위의 사실을 토대로 결국 당·탑의 분리 이전 혹은 분리 이후 대승불교의 가람은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1탑 3금당식의 가람으로 변천되어 가고 부파불교는 1탑 1금당식을 고수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람형식의 변화와 더불어 당·탑의 분리와 금당의 분화에 대한 순차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대승불교의 1탑 3금당식 이전의 또 다른 가람형식의 존재 여부에 있어 1탑 2금당식 가람의 존재 가능성 설정은 당·탑의 분리 이전의 대승불교의 시원적 가람을 유추하는 근거가 된다. 중국과 한국에 있어 1탑 2금당식 가람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몇 가지 사료와 유적이 확인되나 사실규명의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할 정릉사지의 경우 1탑 2금당식 가람의 존재 가능성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가람형식의 상정과 함께 금당내부의 존상형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대승불교의 가람에 있어 불탑 혹은 중금당을 기준으로 좌·우 협시금당의 공식이 성립된다면 금당에 봉안된 불상은 단독 혹은 군상의 어느 형식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협시불에 다시 협시불이 조상되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석가불의 좌·우에는 보살이나 부처가 협시로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경우 약사불의 협시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아미타불에서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시립한다. 이러한 방식은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금당안에 5존 7존 혹은 그 이상의 다불상이 조상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단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가람이 불신관의 변화 및 불상의 등장에 따라 대승불교의 경우 석존을 상징하는 불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불을 안치한 금당이 형성되고 다시 예불의 대상으로 불상의 위상 증가로 인해 당·탑이 분리되어 대승불교에서는 불탑을 중심으로 3금당이 조성되었으나, 석존 중심의 부파불교에서는 단지 탑과 불상이 분리된 형태인 前塔後堂의 1탑 1금당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불신관 변화의 가속화는 종파형성의 생성 기반이 되고 종파 및 신앙상의 필요에 따라 보살이든 明王이든 그러한 그룹의 主尊이 될 수 있었으며⁴³⁾, 더 나아가 타방불 및 정토사상의 발전으로 기존의 불탑 및 중금당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금당들이 이러한 종속적 질서에서 일정 부분 탈피하여 각각의 영역을 이루어 불국토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한국고대건축의 배치특성에 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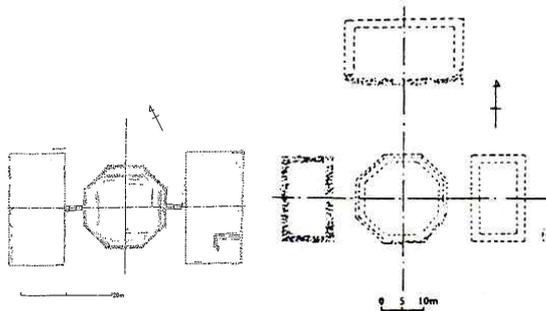
5-1. 1탑 2금당식의 존재에 관한 고찰

대승불교의 가람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1탑 2금당식의 존재 가능성의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1탑 2금당식의 존재 여부는 당·탑의 분리에전에 대승계가람과 부파계가람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탑의 분리 이후 즉 1탑 1금당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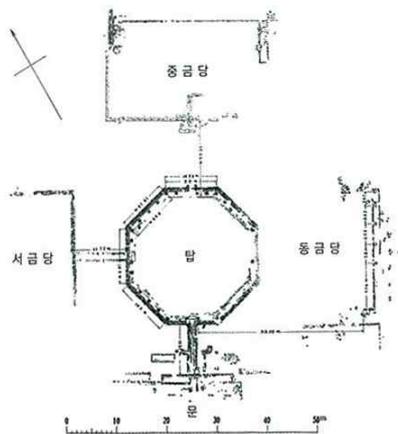
43) 디트리히 제켈著, 이주형譯, 앞의 책, p.232

성립 이후에 좌·우 금당이 발생했다면, 1탑 3금당식은 1탑 1금당식의 발전적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1탑 2금당식의 존재가치는 단탑의 가람이후 대승계가람과 부파계가람의 분화시점 상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고구려의 불사건축 중 이제껏 1탑 3금당식의 가람으로 간주되어 왔던 上五里寺址, 元五里寺址, 定陵寺址 그리고 土城里寺址, 淸岩里寺址 중 청암리사지는 8각 목탑지를 중심으로 동·서금당지와 그리고 북쪽에 금당지가 있는 분명한 1탑 3금당식의 가람임이 확인되며, 토성리사지 또한 북금당과 동금당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1탑 3금당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7> 상오리사지 및 토성리사지
(김왕직, 한국건축사, p.10-11)



<그림 8> 청암리사지 배치도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연구총서 6편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p.237)

그러나 상오리사지와 원오리사지는 외견상 1탑 2금당의 배치형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발굴결과와 미진함으로 배치형식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더라도 정릉사지의 경우 1탑 2금당의 가람배치였음을 인식케 해주는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산물의 조성시기의 규명은 발생시점의 순차를 유추하게 하는 1차적 검토자료이다.

청암리사지와 정릉사지의 건립년대는 청암리 사지의 경우 498년(문자왕 7년)의 금강사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릉사지를 두고 북한에서는 동명왕릉을 옮겨올 때 함께 지은 願刹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릉사와는 불과 12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동명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있기 때문으로⁴⁴⁾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명왕릉이 龍山에 있으며 505년에 문자왕은 룡산에 사냥을 갔다가 5일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는 정릉사터에 있는 집자리가 문자왕이 동명왕릉이 있는 룡산에 가서 5일간 머무르면서 사냥을 할 때 숙소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⁴⁵⁾ 결국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정릉사지의 건립년대는 505년 이전으로 추정되나, 두 사지의 건립시기의 순차성을 밝히기에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료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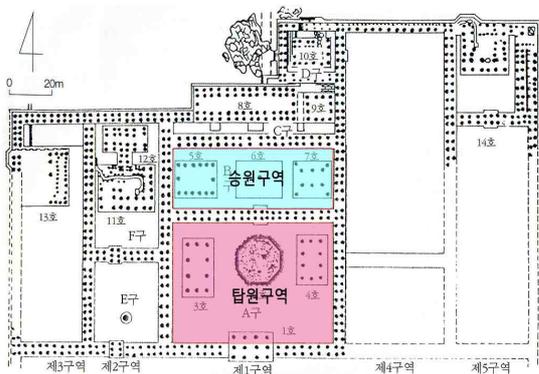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암리사지와 정릉사지의 조성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가정한다면 시간적 전후관계의 규정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문화의 중첩성에 관한 문제로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시점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가

44)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 19년, 권19 문자왕 15년

45) 박진욱, <중세편고구려>, 『조선고고학전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91, p.147~150

일제히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인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결국 동시대에 서로 다른 형식이 공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릉사지는 5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목탑과 금당지가 조성되어 있는 1구역은 다시 회랑에 의해 3구역으로 나누어진다. 中門을 기준으로 八角塔과 東·西堂의 있는 구역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쪽에는 회랑으로 구분된 3개의 건물지가 동서로 나란히 놓인 두 번째 구획이 나타난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북쪽구역의 3개의 건물지 중 중앙의 것을 金堂으로 상정하여 1탑 3금당식의 청암리 사지와 같은 형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림 9> 정릉사지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개념정립을 위한 분류 및 형식화에 따른 무리한 확대해석의 결과로 보여진다.

우선 이러한 주장에 따라 中金堂이라고 규정되어진 건물지의 성격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건물지 좌우에 있는 동·서 건물지는 초석의 배치형태로 보아 동쪽 건물지는 樓建築이었음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것을 鐘樓로 가정한다면 서쪽의 건물지는 經樓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종·경루가 초기의 고대가람배치에서는 講堂의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 基本形이었다는 점이다.⁴⁶⁾ 6세기 이

전의 가람 중에서 강당 및 종·경루의 위치가 확인된 사지들을 보면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배치형태는 거의 찾아지지 않으며 6세기 말에 나타나는 일본의 四天王寺址와 같은 배치형태에서도 종·경루의 위치가 강당의 바로 뒤쪽 좌·우에 배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릉사지의 종·경루 사이에 있는 건물지는 강당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강당은 동·서방향으로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는 것이 큰 특징인데 반해 이 건물지의 평면형태가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강당으로 간주하기에는 평면적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지를 금당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중앙의 건물지를 중금당으로 보았을 때 불탑이 있는 남쪽구역과 건물지가 형성되어 있는 북쪽 구역의 사이의 회랑의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탑과 중금당을 회랑으로 구획해버리는 공간구분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라 보여진다.

이러한 연유로 정릉사지는 남쪽의 구역과 북쪽의 구역을 분리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남쪽구역을 잠정적으로 탑원영역으로 규정한다면 이를 1탑 2금당형식의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1탑 3금당식의 출현과 발전

1탑 2금당식의 발생이후 불상이 불탑에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청암리사지와 같은 불탑의 북쪽에 본존을 봉안한 금당이 조성되어 불탑을 중심으로 북·동·서쪽에 있는 3개의 금당이 불탑을 둘러싸는 형식의 가람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1탑 2금당식과 3금당식에서는 하나의 영역에서 금당이 중심

46) 前 久夫, 古建築基礎知識, 京都, 光村推古書院, p.36-38, 김상연, 앞의 논문, p.6 재인용

탑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사료⁴⁷⁾되며 불탑 중심의 배치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불상의 확대에 따른 금당의 발전과 더불어 삼세십방제불과 현재타방불사상에 기반한 다불사상 및 정토사상과 같은 보다 발전된 불신관의 영향으로 가람배치의 구성방법에 있어 일대 변화를 맞게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한 내용을 皇龍寺, 彌勒寺에서 유추할 수 있다.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이 553년에 건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완료시점에 관해 『삼국사기』에서는 563년 『삼국유사』에서는 3년 후인 569년으로 나타난다. 이는 『삼국사기』가 중심영역의 공사가 완료된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삼국유사』에서는 중심영역을 둘러싸는 회랑과 담장을 포함하는 주변의 시설까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⁴⁸⁾

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黃龍寺 - (『三國遺事』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丈六: 553년)

十四年春三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基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名曰皇龍 -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第四 眞興王十四年: 553년)

또한, 장육존상⁴⁹⁾의 주조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동일하게 574년(진흥왕 35년) 3월에 주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⁵⁰⁾, 584년

(진평왕 6년)에 금당을 조성하였음을 『삼국유사』에 기록하고 있다.

三十五年春三月 鑄成皇龍寺丈六像 -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三十五年: 574년)

時記云 眞平五年甲辰 金堂造成 - (『三國遺事』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丈六: 584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566년~569년 창건된 가람이 584년에 다시 중건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건가람으로 추정되는 유구 중에서 중심영역을 3분할하는 동·서 회랑의 존재로 창건가람의 형태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창건시 1탑 1금당이었던 것이 중건과정에 1탑 3금당으로 조성되었다는 설⁵¹⁾, 황룡사의 창건가람을 1탑 3금당으로 추정하는 설⁵²⁾, 그리고 3원식 3금당으로써 백제의 사찰배치와 유사하다는 견해⁵³⁾ 등이 있다.

그러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창건 후 9년 이상 지난 다음에 釋迦三尊佛 즉 장육존상을 만들고 뒤이어 10년 뒤에 동·서금당이 신설되

50) 삼국유사에서 장육존상이 진평왕대에 완성되었다는 오해가 존재함을 언급하는 내용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이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금당이 불상보다 10년 늦게 장육존상이 진흥왕대가 아닌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51) 김정기·김동현·조유진의견해, 김정기, 『황룡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84, 국립문화재연구소, p.371-379; 김동현, 「경주 황룡사지에 대한 유구내용과 문헌자료와의 비교검토」, 『불교미술』,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1, p.94-135; 조유진, 「신라 황룡사 가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52) 김창호, 「황룡사 창건가람에 대하여」, 경주사학 19집, 2000, p.67-81

53) 양정석, 「신라 중고기 황룡사의 조영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180-181

47) 김성우, 「三金堂 形式의 起源」, 大韓建築學會論文集 卷 4권 1호 통권15호, 1988, p.175

48) 이기백,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p.64-65 참조

49)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연구총서 6편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2010, p.309-330

었다는 것으로 이는 장육존상과 삼금당과의 연관관계를 암시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에 불교가 도입되고, 또한 신라에 불교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불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창건된 사찰에 불상이 없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결국, 창건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금당에는 장육존상이 주조되기 이전까지 다른 불상이 봉안되어 졌음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진흥왕의 왕권 혹은 불교의 형세 진작 및 새로운 불신관의 유입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적 배경에 따라 삼존불상이 조성되게 되고 그에 따라 동·서금당이 추가적으로 중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⁵⁵⁾

그리하여, 본고에서 피력하고 있는 주장과 여러 가지 정황적 견해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몇 가지 추론에 지나지 않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창건가람에 관한 학설들의 기반이 되었던 중심영역의 범위설정에서 탈피하여 창건가람 중심영역의 면적 혹은 대지의 규모가 현재 규정하고 있는 규모가 아닌 다시 말해, 3분할되는 중심영역의 가운데 영역만이 창건가람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1탑 1금당형식을 부과계가람으로 1탑 2금당 혹은 3금당은 대승계가람으로 상정하고 백제 및 고구려의 불교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에 대입하여 백제를 부과계 1탑 1금당, 고구려가 대승계 1탑 3금당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바가 있다.

54) 최효식, 이왕기, <고대가람의 배치 특성>, 『황룡사 연구총서 6』,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시, 2010, p.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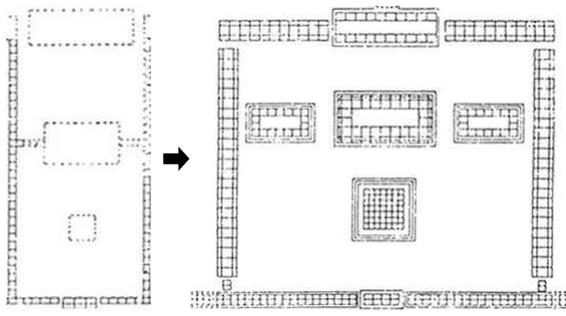
55)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584년 중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단지 진평왕 6년에 금당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566년 창건가람의 형성시 불상을 봉안할 금당이 없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그렇다면 584년의 기록은 동·서금당의 중건기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이때 중금당의 중건도 같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신라의 불교 공전은 521년(法興王 8년)으로 종래의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여 위진남북조시대의 북조 대신에 남조인 梁나라와 국교를 맺었으며 이는 백제의 안내를 받고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⁵⁶⁾ 이후, 양나라 무제가 보낸 승려 元表에 의하여 비로소 신라왕실에 불교가 알려졌고, 527년(법흥왕 14년)에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의 초기불교의 특성을 유추하는 근거라 할 수 있는데, 553년까지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점과, 백제를 통하여 백제와 마찬가지로 남조의 강남불교를 국가 불교로 수용하였다는 점은 이시기 신라가 백제와 유사한 내용의 불교를 취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이다.

또한, 황룡사창건과 관련하여 당시 신라가 대외적으로 크게 영역을 넓혔음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통일 혹은 영토확장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기존의 귀족적 불교색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적 불교의 도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장육존상 연기설화의 의미는 기존 질서의 환기 및 새로운 사상의 유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에 편승하여 진흥왕의 위상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흥왕의 한강유역의 점령은 백제나 고구려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 문화유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존불구성은 대승 불교 불신관의 대표적인 조형적 표현방법으로 황룡사의 창건이후 이러한 삼존상을 조상하였다는 것은 창건시 이러한 불신관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56)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View.aks?pplId=PPL_2SNR_A9999_1_0005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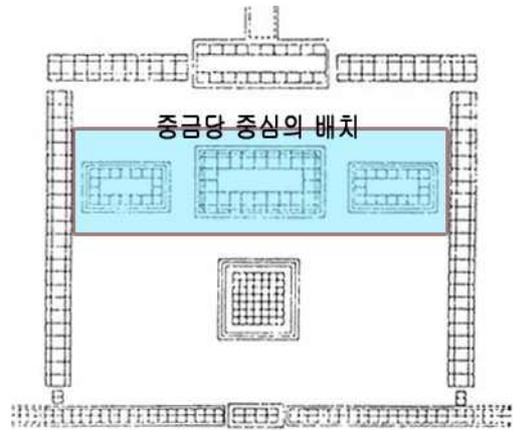
<그림 10> 황룡사 가람배치 변화 추정도

위와 같은 추론에 따라 요약하면, 창건시의 중심영역 배치형식은 부파계의 1탑 1금당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중심영역의 대지규모 또한 3등분된 영역의 가운데 구역에 한정되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그 이후 대승불교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장육존상의 조성 과 더불어 이를 봉안할 양금당이 좌·우에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황룡사에서는 전대의 고구려의 1탑 3금당형식과는 다른 배치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존의 탑을 중심으로 동·서에 형성되던 금당들이 중금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형성되어 균집화하게 되고 이는 탑과의 암묵적 대립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불상의 상징성이 불탑의 실체성을 점차 압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탑에 대한 금당의 탈중심성을 의미하며, 불탑 중심의 가람배치가 점차적으로 불상중심의 가람배치로 전도되어 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건가람의 배치에 관한 주장들은 발굴된 유구나 흔적에 따라 얻어진 결과물이 아닌 추정에 따른 하나의 견해로, 중건시 창건가람의 유구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금당과 탑이 건축된 관계로 창건가람의 금당과 탑의 유구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이러한 가람배치의 변화는 미륵사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 양상으로 발전해 가는데, 기존의 석존을 중심으로 하는 불신관에 따른



<그림 11> 황룡사 2차 중건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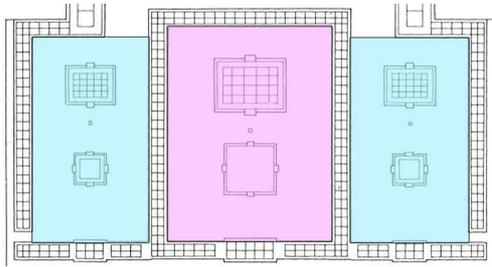
사찰과는 달리 미륵을 본존으로 삼는 사찰이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석존 중심의 불신관에서 벗어나 다른 부처나 보살이 신앙의 주체로서 전면에서 등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종파불교⁵⁷⁾의 영향인 듯하다.

그 동안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미륵이 하생하여 龍華三會의 설법을 하는 3원의 상징적 구조로서 3탑 3금당을 이해하였으나 최근에 서석탑에서 ‘석가사리봉안’기가 출토되어 서쪽은 석존의 영역으로 확인된다. 결국 서쪽은 석존, 중앙이 미륵이라면 나머지는 하나는 당연히 과거불로 결정된다. 삼세불 구성의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다면 동서의 기준에 맞춰 과거-현재-미래가 시각적 순서이나⁵⁸⁾ 종파에 따라 미륵불을 주존으로 하는 경우 그 배치 순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주목할 점은 3금당 전면 모두에 조탑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것으로 원래 불탑은 석존이 열반에 들었을 때에 남겨진 사리를 예경하는 봉안처로서 상징적으로 석존의 실체를 의

57) 일체의 천지만물을 비로자나불의 顯現으로 보는 화엄종, 아미타불 및 그가 출현할 정도의 존재를 믿는 정토종, 미륵신앙과 유식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법상종 등 종파에 따라 추존하는 부처나 보살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58) 이경화, 「三世佛을 통해 본 백제 미륵사지」, 한국사상과 문화 49권, 2009, p.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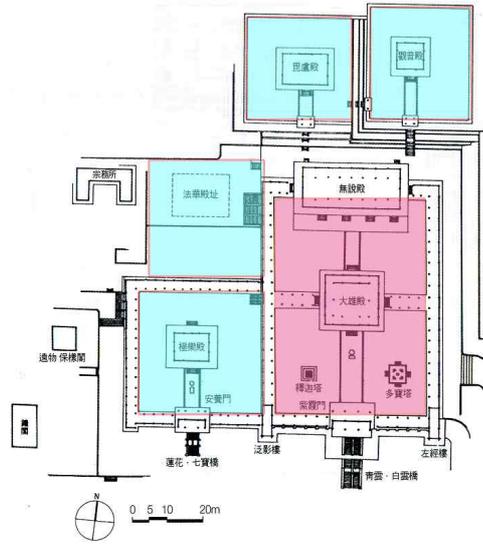


<그림 12> 삼원으로 분리

미하였으나, 이러한 의미는 점차 상쇄되어 결국 불탑의 보편적 가치의 하락으로 미륵사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구가 확인된 미륵사 이전의 백제시대 대부분의 가람이 1탑 1금당의 형식인데 반해 미륵사는 소위 3원식 혹은 3탑 3금당식의 전례 없는 배치형식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전의 다른 3금당식의 가람에서는 중금당과 동·서금당이 한 영역 내에 존재했던 것과 달리 미륵사에서는 본존 즉 중금당을 중심으로 협시금당으로 사료되는 동·서의 금당영역이 회랑으로 구획되어 각각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佛國寺와 같이 정토사상 즉 불국토사상에 기초한 불국토의 구체적인 건축적 실현의 전 단계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아직 중금당에 대한 탈중심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중금당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황룡사와 미륵사와 같이 예배대상으로서 불상의 위상 증가 및 석존중심의 불신관의 약화 현상은 후대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 되어 가는데 불국사에 이르러 석존을 상징하던 불탑 혹은 중금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으로 건립되어 협시적 역할을 하던 부처 혹은 보살의 금당들이 이러한 중심성에 기반을 둔 대칭구도에서 벗어나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여 불국토를 이루게 됨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동·서의 금당을 대신하여 중금당 전면 좌·



<그림 13> 불국사 영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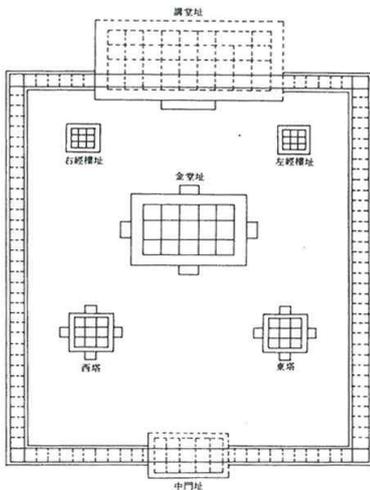
우에 불탑이 자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高裕燮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통일기로 접어들자 불사건축에 변혁을 이룬 것은 탑의 가치의 저하요, 따라서 가람 배치의 변동이다.(중략) 금당이 본존 격이 되고 탑이 협시 격이 되어 兩個가 侍立하게 되고 금당의 뒤로 경루와 鼓樓가 殿待하고 이를 둘러 廊廡가 막아 있게 되었다.(후략)”⁵⁹⁾

그리하여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불탑이 불상 즉 중금당의 협시가 되어 양탑의 형식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점차 작아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탑 1금당식의 가람 중 6세기 초에 창건된 佛國寺는 현재 본고에서 전개하는 주장의 범주에서 비껴나 있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층의 원인에는 금당 전면에 건립된 양탑의 명칭규정에 따른 문제로 현재 서탑을 釋迦塔, 동탑을 多寶塔으로 命名하고 있는데, 이 명칭의 사용에 관한 정당성의 확보는 아직 留保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논의

59) 고유섭著, 김동현 옮김, 『(又玄 高裕燮 先生의)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대원사, 1999, p.79-80



<그림 14> 사천왕사지 배치도
(윤장섭, 앞의 책, p.206)

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을 모든 가람의 형식에 대입하는 것은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좀 더 명확한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탑배치의 특수한 사례로 유존시키도록 하겠다.

결국 불탑에 대한 당의 비중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며 선종의 영향으로 사찰들이 산지로 옮겨 감에 따라 일부 가람에서 불탑이 사라지기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3. 가람배치의 구성원리에 관한 조형학적 분석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가람내의 불탑과 금당의 위치 변화에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요소에서도 그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삼존불구성의 도상의 원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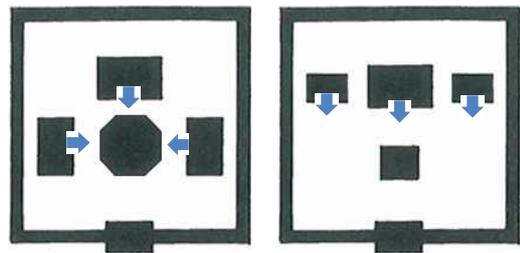
대부분의 삼존불 구성이 그 구도에 있어서 일정한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중앙을 중시하는 中軸性과 정면성, 좌우대칭구도, 그리고 크기에 의한 종속 관계 등과 같은 일련의 제작원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삼존불구성의 도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크기 대비 및 중축성의 원리는 중앙의 像을 존중하는 고대인의 심리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이와 같은 중축성의 원리는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는 부처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중앙에 있는 불상을 중시하여 본존만을 크게 만듦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존불을 기본요소로 하여 제작된 간다라의 군상부조에 있어서 세體의 불상이 모두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시기의 군상부조가 초기의 설화부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도에서 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간다라 후기의 군상부조에 있어서 불·보살을 정면으로 향하게 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이야기의 한 장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배상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⁶⁰⁾



<그림 15> 금당의 향변화

이러한 삼존불 구성의 원리와 한국고대가람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구려의 1탑 2금당 혹은 3금당의 가람들에 있어서 좌·우 양금당이 불탑을 바로보고 남북으로 長軸을 이루고 있는 반면 황룡사와 미륵사의 양협시 금당들은 정면을 향하여 동서로 장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석존이외의 불·보살상들도 신앙의 대상

60) 김정숙, 「三尊佛構成의 圖像的 原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p.116-117

으로 독자적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앙을 중시하는 관념은 불탑에 이어 중금당 중심의 구도에 이르러서도 본존을 크게하여 중시하는 표현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삼존불 구성의 원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할 수 있겠다.

6. 결론

한국 고대가람은 동아시아 불사건축 변천과정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그 기원을 추적함에 있어 불교사상 및 불신관의 변천과 더불어 불탑과 불상의 상호대립적 관계의 작용이 가람의 배치형식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승불교의 출현은 석존 중심의 불신관을 극복하여 다불사상을 낳게 하고 이는 불탑 및 불상과 더불어 가람배치의 변화를 초래케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람배치의 변화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데, 불상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기존의 단탑구성에 좌·우 금당이 협시하는 1탑 2금당으로 가람이 구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승불교의 다불사상에 입각한 삼존불구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전의 초기적 삼존불구성과는 달리 석존을 포함한 다른 부처나 보살이 신앙의 대상으로 등장함을 의미하며, 불상의 봉안처로서 금당은 이러한 존상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석존의 실체로 간주되었던 불탑에서 불상이 독립하게 되어 불탑의 뒤쪽에 중금당이 조성되었으며 불탑을 중심으로 3개의 금당이 둘러싸는 1탑 3금당식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불상의 상징적이고 무제약적인 측면이 불탑의 실제적인 측면을 압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석존의 존상제작에 대한 不敬스러움의 완화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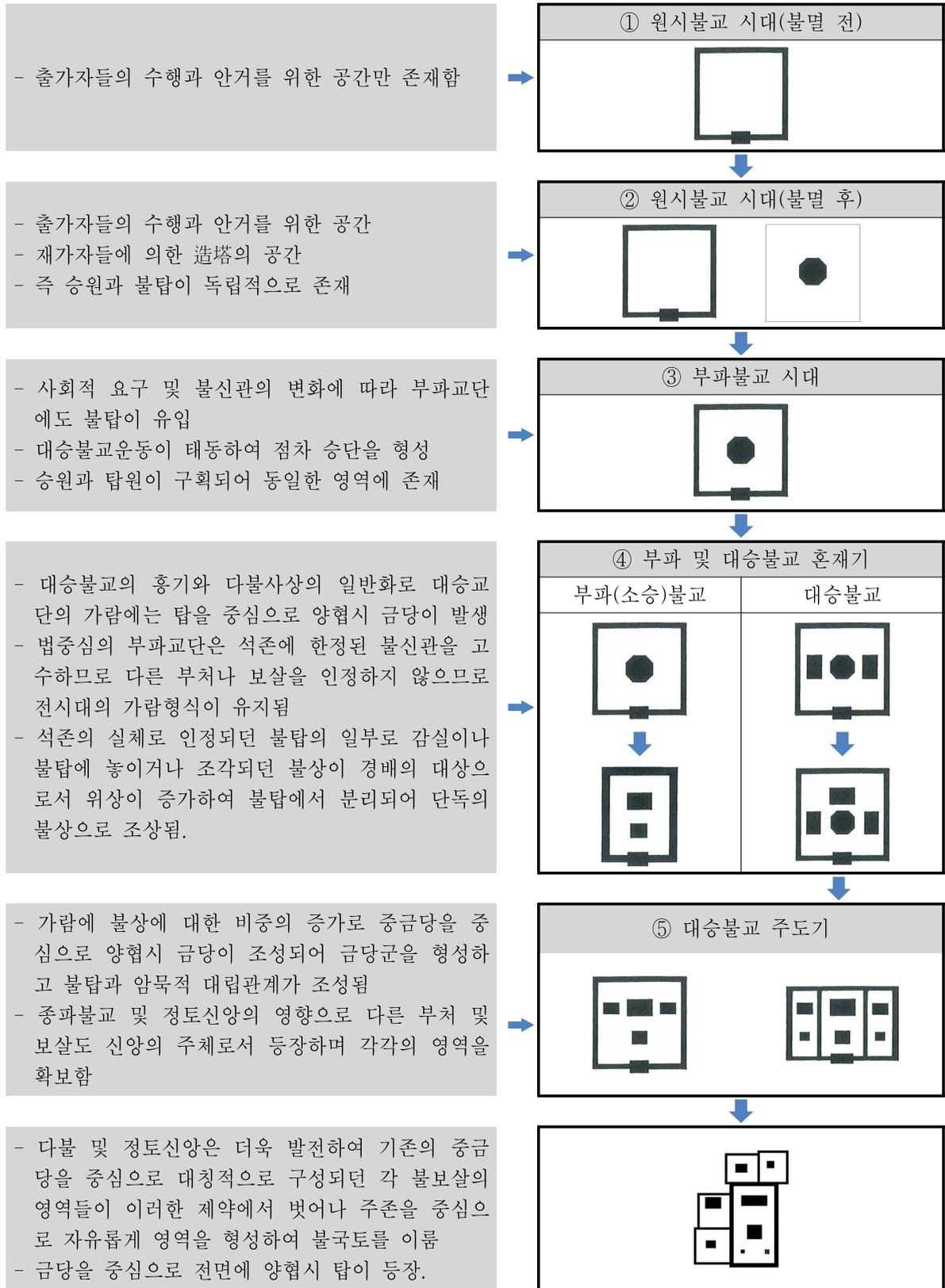
그리고 대승불교 불신관의 발전은 중국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어 정도신앙 및 종파불교를 파생케 하였으며, 각 종파 혹은 신앙에 따라 주존을 달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람내부에 각각의 부처 및 보살의 영역이 설정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탑 중심의 배치방법에서 탈피하여 중금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금당들이 형성되어 금당군을 형성하고 불탑과 암묵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점차 불탑의 가람내 입지 약화는 가속화 되어 결국 불탑은 쌍탑의 형식을 이루어 (중)금당의 전면에서 금당의 협시화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부파불교에서는 석존에 한정된 범중심의 불교관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1탑 1금당식을 고수하게 되는데, 이는 중생 즉 대중에 기반을 둔 대승불교가 점차 종교화 되어 가는 것과 달리 출가자들에 한정되어 석존의 가르침에 대해 철학적 해석을 추구했던 부파불교는 점차 대승불교의 과급력에 잠식되어 갔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종파불교의 등장은 대승과 부파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 및 백제의 불교 유입에 있어 당시 인도와 중국의 불교정세와 연관하여 두 국가의 불교특성을 고찰한 결과 공식적으로 고구려는 대승불교를 백제는 부파불교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 불교의 이러한 불신관의 상이함은 가람배치에 있어 다른 구성방법을 선택케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아시아 가람의 기원과 변천은 불교의 유입 및 전파과정에 따른 지역적·문화적 영향에 의한 토착화의 산물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내적 변화에 따른 조형적 표현의 결과라 사료된다.

[표 1] 가람배치의 변천 과정 추정도



<참고문헌>

1. 엄중섭, 「伽藍配置의 來源가 중국적 전개 양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사연구 제19권 2호, 2010
2. 히라카와 아키라著 이호근譯, 『인도불교의 역사』, 민족사, 1989
3. 中村元 著, 金知見 譯, 『佛陀의 世界』, 김영사, 1984
4.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효림, 1997
5. 정각, 『가람 절을 찾아서』, 운주사, 1991
6.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
7. 디트리히 쾨켈 著, 백승길 譯, 『佛敎 美術』, 열화당, 1985
8. 김정숙, 「三尊佛構成의 圖像的 原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9. 최완수,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대원사』, 2002
10. 윤장섭, 『인도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11. 양재영, 韓國 古代寺刹의 空間計劃에 關한 研究, 고려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8
12.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 국제, 2006
13. 노권용, 「三身佛說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불교학회, 제32호, 2002
14. 김상언, 「한국 고대가람의 배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논문, 1992
15. 미찌하다 료오슈著, 계환譯, 『중국불교사』, 우리출판사, 1996
16. 米田美代治 著, 申榮勳 譯, 『韓國古代建築의 研究』, 東山文化史, 1976
17. 김성우, 「三金堂 形式의 起源」, 대한건축학회, 4권 1호, 1988
18. 김성우, 「高句麗 佛寺計劃의 變遷」, 대한건축학회, 4권 5호, 1988
19. 가마타 시게오 著, 신현숙 譯, 『한국불교사』, 민족사, 2004
20.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2001
21. 엄중섭, 「釋迦塔과 多寶塔의 명칭적인 타당성 검토」, 한국건축역사학회, 제19권 4호, 2010
22. 마에다 에카쿠著, 석오진譯, 『불교요설』, 김영사, 1987
23. 이주형, 남동신, 이태승, 강희정, 주경미, 김혜원, 이영중, 하정민,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주)사회평론, 2009
24. 武内紹晃, <佛陀觀의 變遷> 鄭承碩譯, 『大乘佛敎概說』, 김영사, 1989
25. 町田甲一, <佛像의 理念と その 圖像의 展開> 『講座 佛敎思想』 第7卷, 理想社, 1975
26. 李孝杰, 「華嚴經의 成立背景과 構造體系」,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27. 박진욱, <중세편 고구려>, 『조선고고학전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91
28. 이기백,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29.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연구총서 6편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2010
30. 이경화, 『三世佛을 통해 본 백제 미륵사지』, 한국사상과 문화 49권, 2009
31. 고유섭著, 김동현 옮김, 『(又玄 高裕變先生의)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대원사, 1999

접수(2010. 10. 15)

수정(1차: 2011. 1. 28, 2차: 2011. 2. 10)

게재확정(2011. 2. 26)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Ancient Buddhist Temples of Korea

- Based on the Analysis about Development of View of Buddha-kaya,
Change of Status of Stupa and Statue of the Buddha -

Lee, Zu-Hyung

(HoYon Architectu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Univ. Sevilla in Spain)

Jang, Suk-Ha

(Professor, Univ. Kyungil)

Abstract

It is a true fact that the ancient Buddhist temples of Korea were great, important historical influence revealing the transition and developing stages of all the Buddhist temples in Eastern Asia including China and Japan.

Before Mahayana arose within India, the monastery and pagoda were united during the conflict and development of the original Buddhism and pagoda faith. With the arising of Mahayana and the introduction of Buddhist statues, the Buddhist temple and pagoda were in conflict and resulted in separation.

With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hayana Bodhisattva concept, Hinayana and Mahayana started to show doctrine differences and expressed each others' characteristics relevant to the structure of the temple.

As a result, the Buddhist Temple having 1 pagoda spread in China together with Hinayana and Mahayana. The Buddhist temple of Hinayana had its temple and pagoda separated and the Buddhist temple that has a pagoda in front was divided into a form of 1 pagoda and 1 main temple. The temple and pagoda for Mahayana in the form of 1 pagoda and 2 temple, where the main statue of the Buddha may be worshipped from both the left and right hand sides, were separated in the form of 1 pagoda and 3 temples to have its original form again.

Mahayana was first introduced into Goguryeo through the routes in the northern region and developed from having 1 pagoda and 2 temples, to having 1 pagoda and 3 temples. China was influenced by the southern regions, which is why Abhidharma was introduced into Baekje.

Later on, the importance of Bodhisattva increased and the transition speed of the Buddhist temple having 1 pagoda and 3 temples accelerated, as Buddhism became more

popular and as Mahayana flourished.

The statue of the Buddha on both sides of the pagoda shall gradually move next to the central temple , and the temple shall form large crowds to not only form a tacit boundary with the pagoda but the expansion of Bodhisattva shall also have a wall or a corridor constructed in between the central, left and right hand side temples to form separate areas, and shall have a pagoda built in front of the temples that worship from both sides.

In conclusion, independence shall exist among each Bodhisattva within the Buddhist temple, and the status of the pagoda shall fall and appear as the pagoda on both sides in front of the main Buddha statue.

Keywords : A Buddhist temple, Mahayana Buddhism, Statue of the Buddha,
A Pagoda, 1 Pagoda and 3 Temple
